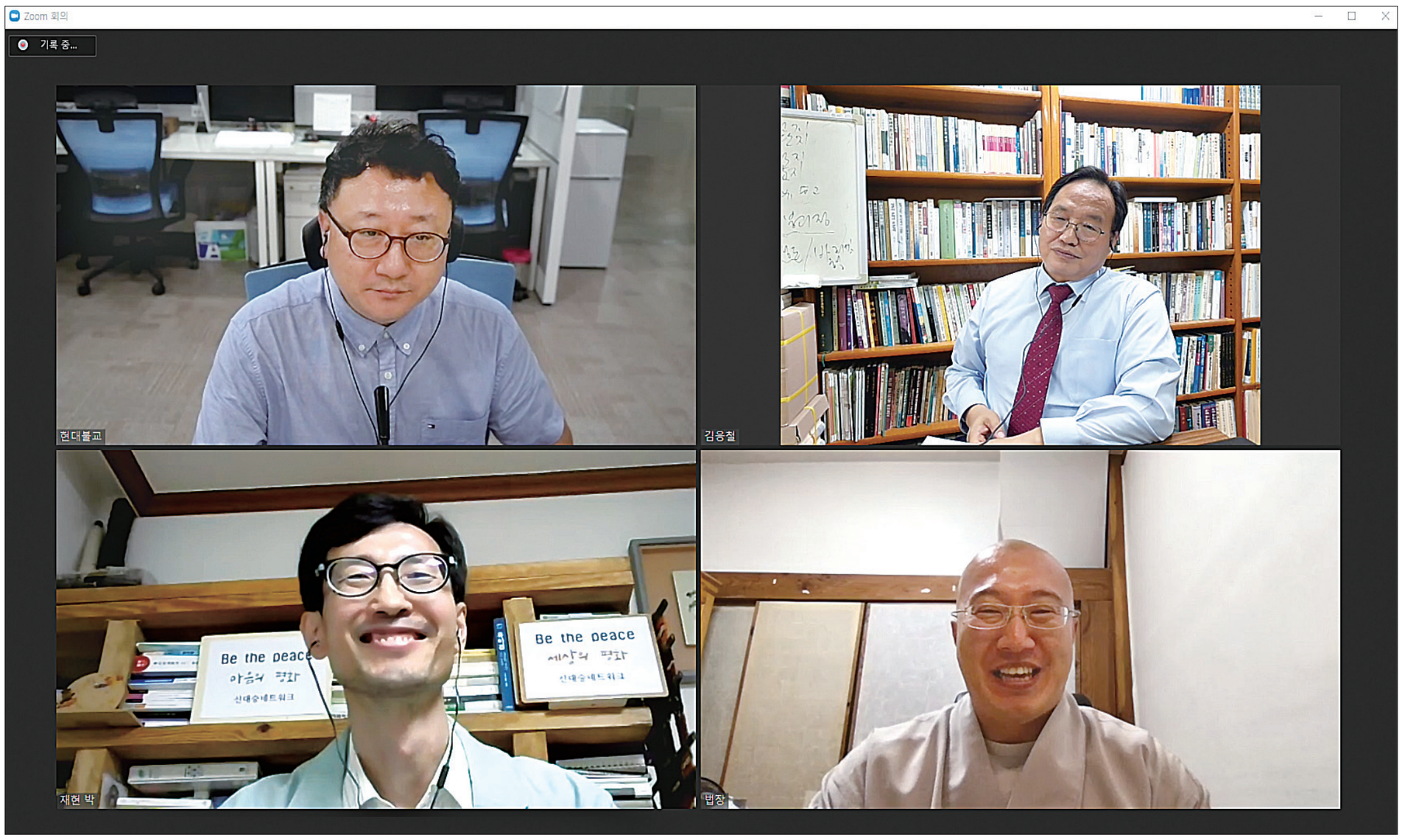
‘코로나 이후 불교가 나아갈 방향’

코로나19&불교 언택트 대담

찾아가는 법회 · 사찰 운영 개방… “소통하라”



현대불교신문사 언택트 대담에는 전문가 3인이 참석했다. 지면 사진은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이용한 대담 화면을 캡쳐해 편집한 것이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진행자인 본지 김주일 편집국장,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 박재현 신대승네크워크 소장.

A4면에서 계속

이런 방식의 법회는 감흥도 없고 소통도 되지 않습니다. 법회 방식이 온라인이어도 그 속에서 감동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법장 스님: 해인사에서는 안거 법문의 경우 쌍방향 소통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중진 스님들이 2차로 풀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온라인 환경을 상황에 따라 대중 법회에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응철: 불교 경전에서도 부처님 설법 시 못 알아듣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은 아난 존자나 사리불 존자에게 가서 2차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어른 스님들이 법문을 하면 해설을 해주는 2차 설법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법회는 더욱 2차 설법과 이를 통한 대중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주일 **사찰 정기회원제, CMS 등의 도입에 대해 ‘매우 찬성 ·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도입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이 부분의 도입이 안 됐을까요?**

법장 스님: 불전 수입에서도 패러다임 변화를 고민해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노점에서 옥수수를 사먹어도 ‘알리 페이’로 결제합니다. 한국에서도 삼성 페이, 카카오 페이 등 다양한 전자화폐로 대부분 결제하는 시대입니다. 불교계서 도입이 늦는 것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재현: 회원제나 멤버십 제도는 주인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는 사부대중이 중심이라고 하지만 재가 신도들은 사찰의 주요 의사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도들이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합니다. 사찰운영위원회가 있지만 형식적인 곳이 많습니다. 사찰 운영에서 신도들의 역할에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김응철: 온라인 결제뿐만 아니라 카드 결제조차 안 되는 사찰이 많습니다. 이런 현상 이면에는 스님들의 무관심 이외에도 사찰 재정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사찰 재정이 완전히 투명해지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재정이 투명해져야 보시금을 내는 신도들도 이를 신뢰하고 신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절’이라는 마음을 심을 수 있도록 사찰을 운영해야 합니다.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의 경우 CMS 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원이 800여 명을 넘는데 함께 등산, 축구를 하며 친목을 도모합니다. 매월 1회 정기 법회도 봉행하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후원회의 자체적인 운영권도 후원회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관습을 버리고 변화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박재현: 정기회원제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 사찰의 소속감 문제와 함께 사찰 재정 구조 문제도 있습니다. 사찰 재정 구조는 불경, 기도, 재(齋)가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신도회비에 비해 기도 수입이 크다 보니 정기회비에 대해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통 방식뿐만 아니라 신도들의 안정적인 재원으로 운영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주일 **코로나 사태가 불교계에 던진 화두에 대해 출재가자들은 공히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불교적 가치 개발’을 꼽았습니다. 대담자들께서는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불교적 가치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법장 스님: 불교적 접근으로 본다면 연기법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가 자초한 것을 돌려받는 과정입니다. 모두 인간이 만든 것이고 초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생하고 화합하는 대승적인 실천 행동이 필요합니다. 연기법을 통한 실천, 그것이 현대적 불교 가치 실현이라고 봅니다.

박재현: 사회적 가치와 불교적 가치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정, 공유, 평등이 사회적 가치라고 보면 생명, 나눔, 돌봄이 불교적 가치라고 봅니다. 현재 코로나19는 생명 가치와도 연결이 됩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나눔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 생긴 사각지대에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김응철: 연기적 관점으로 보고 행동하는 것이 ‘불교적 가치’의 실현입니다. 이는 불교의 5계 속에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소통과 화합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불교적 가치의 핵심입니다.

김주일 **코로나 시태가 불교계에 던진 화두를 묻는 질문에서도 출 · 재가자들은 소폭의 인식 차를 보였습니다. 출가자는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불교적 가치 개발’ 항목을 가장 많이 꼽았고, 재가자들은 ‘시대에 맞는 신행프로그램’을 제일 많이 꼽았습니다. 이 같은 인식 차의 이유는 무엇때문일까요? 그리고 재가자들이 요구하는 ‘시대에 맞는 신행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언주신다면요.**

법장 스님: 단순하게 수동적인 참여가 아니라 신도가 주도하는 능동적 참여의 신행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신도들이 주도하고 자신들이 꾸려나갈 수 있는 사찰 신행프로그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박재현: 일상생활 속에서 불교가 실천됐으면 합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 채식을 하는 것, 사회적 나눔과 돌봄에 나서는 것 등에 신행프로그램을 접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대승네트워크는 ‘무소유나눔페스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나누며, 나의 물건을 가져가는 이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줄이고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어서 가능한 감사 인사인 것이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하나의 신행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김응철: 두 분 말씀에 공감합니다. 체험 가능한 공감이 앞으로 신행프로그램의 방향입니다. 요즘 문화 치유명상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문화로 공감하고, 치유로 타인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우며, 이 과정을 명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최근 개인적인 체험 위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명상에 문화적인 기법을 더하고 타인의 어려움을 치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불교 포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주일 **앞으로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19 감염의 위기가 상존하는 시대에 대면 법회의 방식과 의례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응철: 사찰에서 이뤄지는 대면법회 양식이 축소된 양식으로 집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가정불교의례’가 그것입니다. 명절 때, 제사 때 불교적인 재로 바꾸자는 운동입니다. 〈반야심경〉 〈천수경〉 등을 ‘가정불교의례’를 위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이나 형제들이 생경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도록 유도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연습이 되면 사찰법회 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가정불교의례’를 현대에 맞게 만들어 보급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박재현: 대규모의 법회보다는 △찾아가는 법회 △공동체 중심의 법회 △토론과 대화 중심의 상담형 법회 △다양한 콘텐츠가 담긴 법회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구본사에서 법회가 진행된다면 본사 주지 스님만이 법회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주제, 세대, 관심사별로 법회를 나눠 소규모이지만 응집력 있는 법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법장 스님: 시대에 따라 자연스럽게 모이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소규모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인사는 법회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마애불 법회, 철야기도 법문에 온라인 법회 등 참여 가능한 것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김주일 **코로나19 이후 도심사찰과 시골사찰, 큰 사찰과 소규모 사찰, 신도 연령층에 따른 사찰 간 격차가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응철: 포교환경 변화에 대한 생존 ·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선, 도심 포교 사찰이 지역사찰, 농어촌 사찰과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도심 사찰은 신도 개인이 대중 속에서 존재감이 미미한 경우가 많아서 도심 사찰 신도들이 일부러 작은 사찰에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찾아가는 가정법회’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울의 자녀가 시골 부모님이 다니는 사찰의 스님과 네트워크를 갖게 되면 하나의 창구가 되어 여러 유대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것 자체가 포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사찰이던지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SNS로 소통되지 않는 곳이 없고 자동차가 있어 가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돌파구를 열어야 합니다.

박재현: 저출산 고령화와 더불어 지역 소외 현상은 한국사회의 문제점입니다. 현재 사찰 대부분이 중소도시에 위치해 있는데 코로나가 이런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스님들이 없는 절이 늘고 있습니다.

해답은 불교 공동체성 회복에 있습니다. 저는 사찰을 개방했으면 합니다. 출가자 중심 운영에서 사부대중 운영으로 전환해야 하고, 지역과 공존 공생하는 방향으로 사찰 운영이 전환돼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신도들에게 바른 보시의 길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욕망에 기반한 보시가 아니라 진정한 보시는 제대로 쓰고 전법하는 것임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사찰뿐만 아니라 불교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네트워크가 형성될 때 사찰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불교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기꺼이 투자해 나가야 합니다.

법장 스님: 승가에는 개인적인 이익 추구, 개인 사찰 개념이 없습니다. 승가도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찰마다 다양성이 있습니다. 꼭 대형사찰과 같이 재와 기도로 사찰을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찰은 그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운영해야 합니다. 시대와 상황이 변화하면 그에 맞춰서 사찰 운영도 변화하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김주일 **‘코로나 블루’라고 할 정도로 국민적 우울감이 팽배하지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불교계는 현재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해주신다면.**

박재현: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울증이 수십 배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고, 음주도 20%가 늘었다고 합니다. 사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과 심리적인 어려움이 함께 오고 있습니다. 이제 불교계는 거리두기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역할과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들의 심리적 방역에 집중하고, 가진 재화로 나눔과 돌봄을 시행해야 합니다.

종단들은 불교계 명상심리전문가들과 함께 심리적 방역본부를 발족해서 온 · 오프라인에서 상담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사찰에서도 스님들이 신도들을 찾아가서 가정방문을 하고 신도들 심리상담을 하는 방안도 강구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시대의 사찰은 대규모 법회 공간보다는 불자와 국민들이 마음을 위로받고 치유받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들은 불교계가 개발해야 합니다.

김응철: 전북 진안 도림사에서 특강을 하러 갔는데, 15명이 왔습니다. 다들 코로나로 인해 법회를 봉행하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사찰서 강의를 들어서 매우 좋아했습니다. 저는 사찰이 지역 주민들과 끈끈한 인연을 다지며 여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그곳에 보았습니다. 사실 그날 참석한 신도들은 사찰 신도 중에서도 지도자급에 해당됐습니다. 강의 내용도 정리해서 신도 커뮤니티에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같은 유대감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도 많이 도움됩니다. 한국불교의 큰 단점은 재가불교지도자들이 없는 상황이란 점입니다. 지도자 양성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법장 스님: 심리적 방역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불교의 화두입니다. 그동안은 제2의 신천지나 사랑제일교회가 될까봐 걱정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입니다. 소규모 형태로 스스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함께 치유하는 모임 등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를 운영하는 전략적 기구가 필요합니다. 선발된 인원을 잘 교육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김주일 **마지막으로 대담자들께서 생각하시는 코로나 이후 불교계가 나아갈 방향을 키워드로 정리해주신다면.**

법장 스님: ‘전통과 IT의 조화’입니다. 불교적인 것을 고수하면서도 발전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다닙니다. 모든 대중들이 미디어 확장성을 갖고 평등한 구조가 되는 것이 IT입니다. 이를 통해 불교는 대중들을 만나고 소통해야 합니다.

박재현: 저는 한국불교에서 코로나19 사회에 대한 ‘전략과 방향성 수립’을 꼽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물적 토대서 벗어난 사찰 운영’입니다. 무빙템플처럼 물적 토대에 국한되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도량이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응철: ‘행복 메시지’입니다. 사찰과 종단, 스님들께서 행복의 메시지를 주셨으면 합니다. ‘불교는 많은 사람들을 이익 되게 한다’는 것을 매일 조금씩 불자와 국민들에게 SNS와 여러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인식시켜줬으면 합니다. 저도 매일 카카오톡으로 ‘행복 메시지’를 보내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저는 이런 운동을 종단의 영향력 있는 선지식들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지혜가 갖는 영향력은 향후 종단과 불교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